

인민을 위해 느끼시는 보람

2013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기쁨에 넘쳐 실내체육관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실내체육관은 볼수록 멋있다고,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이 물놀이장에서 수영과 물놀이를 하고 실내체육관에서 배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운동도 하게 되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뇌리에는 지난 일들이 어제런듯 떠올랐다.

몇달전 찌는듯한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문수물놀이장에 체육실이 없는데 체육실을 하나 건설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 다음날에는 형성안도 몸소 완성시켜 내려 보내주시였다.

그토록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건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 모든것은 다 잊으신듯 인민들의 기쁨넘친 모습을 그려보시며 미소를 지으시는것이였다.